

# 광주시, 광양제철소서 철강산업 에너지전환 논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6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제철소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에너지 운영 현황과 향후 전력 공급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광주전남 통합을 앞두고 지역 핵심 산업인 철강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 규제 강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포스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철 공정에서의 전력 사용 현황과 에너지 운영 상황, 향후 에너지 확보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철강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 전망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산업계 대응 상황, 제철소 에너지 운영 방식 등을 논의했다.

포스코 측은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활용한 발전 등 현재 운영 중인 전력 생산 방식과 향후 에너지 운영 계획 등을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강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산업 에너지전환이 중요하다”며 “향후 산업단지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정책 동향, 지역 산업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

강기정 시장, 광양제철소 현장방문... 전력수급 대책 등 의견 나뉘  
“소형모듈원전·청정수소 활용 등 종합적인 에너지대책 마련돼야”



는 제철산업의 특성상 전기요금 할인만으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소형모듈원전(SMR)과 청정수소 활용 등 종합적인 에

너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전광춘 기자

## 주거환경개선 사업 ‘새뜻한 우리집’ 추진

저장강박 의심가구 대상, 청소·방역·건강 치료까지 통합 지원

광주 동구는 관내 저장강박증으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민·관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구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심리적 치유를 지원하는 ‘2026년 새뜻한(새롭고 따뜻한) 우리집’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저장강박은 물건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물건을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행동장애로, 악취와 화재 위험을 초래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동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 희망복지팀을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부터 주거환경 개선, 정신건강 상담까지 이어지는 통합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등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취약계층 주민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1가구당 100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쓰레기 처

리, 청소, 방역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은 물론,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전문 상담 및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다.

동구는 지난 5년간 저장강박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왔다. 연도별 지원 실적은 ▲2021년 3가구 ▲2022년 12가구 ▲2023년 9가구 ▲2024년 7가구 ▲2025년 8가구다. 올해 사업은 메리츠화재의 후원금 500만 원으로 운영되며, 구는 오는 3월 28일까지를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사회적 기능을 회복해 다시는 물건을 무분별하게 쌓아두지 않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 광주 남구,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의견 접수

광주 남구는 16일 “관내 개별주택 1만 4,538호와 공동주택 7만 2,254호를 대상으로 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관내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위치와 면적, 구조, 이용 상황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정을 거쳐 결정된다.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실거래가와 시장 가격, 단지 특성 등 다양한 가격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정한다.

개별주택 소유자는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또는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해 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면 된다. /임채일 기자

## 서구, 광주 최초 ‘QR코드 건축사례집’ 제작

무단 증축·용도변경 등 위반사례 정리...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QR코드를 포함한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배포하고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례집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또 사용승인 이후 2년 이내 건축법 위반행위가 집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건축물 사용승인 단계에서 건축주에게 예방 사례집을 직접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례집은 서구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현수 건축과장은 “위반건축물은 대부분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사전 예방중심의 건축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 등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박석우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례집은 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 조경 및 공개공지 훼손 등 대표적인 건축법 위반 사례를 시각 자료 중심으로 정리

## 결혼식을 무료로... 북구, ‘우리두리 작은 결혼식’ 추진

웨딩홀 대관료·예복·헤어·메이크업·촬영·앨범 제작 등 무료 지원

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웨딩홀 대관 ▲예복 대여 ▲헤어·메이크업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등 예식 서비스 전반을 무료로 제공한다. 단, 드레스 업그레이드, 식전영상 제작, 이벤트 등 옵션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본 예식은 9월~11월 중 문흥동 까사디루체 웨딩홀에서 진행된다. 무료로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부부는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 사항을 참

고해 구비서류를 우산종합사회복지관(북구 중문로 55)에 제출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청년 부부에게 평생 남을 추억을 선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 지역에 동지들 틈 청년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출산 및 육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9월 ‘우리두리 작은 결혼식’을 통해 예식을 올린 주민에게 감사 편지를 받았다. /송현근 기자

SEASON 8  
우리들의 행복한 시작  
2026년 행복함동행! 우리두리 작은결혼식

예비결혼부부 여러분! 사랑하는 시작을 위해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이 무료 결혼식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6. 3. 5 ~ 2026. 4. 30.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 예비부부 3쌍 (연소득, 자립형, 다문화 우선)

지원내용: 웨딩홀 대관, 예복, 헤어 메이크업, 촬영, 앨범 제작 등 지원 (단, 열매 15만 원은 자부담)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및 초상권 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대표번호 062-266-3851 / 담당자 직통 070-5099-4856 / 북구 주민센터 (2026년 4월 15일 전)

우산종합사회복지관 | 우산종합사회복지관

## 1면에서 이어짐

민 의원은 “주 의원과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인연이 있고, 계산이나 셈을 따지지 않을 정도의 신뢰가 쌓였다”고 말했다. 주 의원 측도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정가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에 각각 뿌리를 둔 정치세력 간의 전략적 연대는 이번 선거의 숙명이고 판을 흔들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며 “특히 2인 결선이 확정될 경우 2차 합동연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 후보 단일화도 활발하다. 김용철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성원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구 수석부회장, 하상용 전 광주창조경제혁신

센터장, 황경아 전 남구의회 의장은 이날 원팀 단일화에 적극 합의했다. 광산구청장 경선에서도 박수기, 이귀순 후보가 1차 단일화한 데 이어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박광식 후보와 2차 연대가 현실화됐고, 차승세, 정무장 후보도 단일화로 힘을 모았다. 전남 여수시장 경선 등 전남 일부 지역에서도 단일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경선이 열거를 더하면서 합동연행이 빠르게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경선 캠프 관계자는 “단일화를 통해 세 결집은 물론 정책 연대도 가능해 후보 간 다자 단일화는 물론 교육계 등 직능단체 겨안기도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nownaju